유채꽃·벚꽃 활짝 '월출산의 봄' 멀찌감치 둘러선 월출산 기암괴석과 활짝 핀 벚꽃, 융단처럼 펼쳐진 노란 유채꽃밭이 봄의 절경을 연출하고 있다. 18일 영암군 군서면에 만개한 유채꽃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마다 봄내음이 물씬하다.

/영암=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4·19 주역 광주·전남 9명 건국포장

50년만에 … 유인학·정철기·안익현·김영갑·전해룡·구양술·강영원·박채주·이진규씨

지난 1960년 4·19 혁명 당시 광주·전남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가했던 60~70대가 반세기 만에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붙잡으러 다녀 교사들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흔적을 지워버리거나 사회 분위기도 안정을 찾지 못해 4월 혁명의 주역들은 상당수가 반세기 동안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혁명 50년 만에 공로를 인정받은 안익현·김영갑·전해룡·구양술(이상 광주)·정철기·강영원·박채주·이진규·유인학(이상 전남)씨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19일 '4·19 혁명 제50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포장을 받는다.

영암 출신 유인학(71), 광양 출신 정철기(73) 전 국회의원도 이번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전남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유 전 의원은 조선대 학생들과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이기로 협의하고 20일 금남로와 대인시장, 법원 앞에서 시위하다가 군인들에게 구타당했다. 이날 연행된 유 전 의원은 사흘 뒤인 22일 풀려났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서울대 2학년생으로 학생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정권 하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경무대까지 행진하면서 민주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조선대 2학년생 박채주(70)씨도 1960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다쳐 육군 병원에 2달간 입원하기도 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고교생들의 활약도 반세기가 지나서야 인정받았다. 1960년 4월 안익현(69)씨는 조대부고 3학년이었다. 그는 수업을 받던 중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뛰쳐나와 무작정 금남로에 있던 시위대에 합류했다. 여느 학생들처럼 가방에는 돌멩이를 가득 담고선 총을 쏘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총소리와 최루탄 연기…. 80년 5월 만큼이나 금남로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아비규환이었다. 충장로 우체국에서 붙잡힌 그는 결국 "다시는 시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풀려났다.

184㎝의 키에 핸드볼 선수였던 강영원(67)씨는 당시 광주상고 1학년이었다. 그는 3·15 부정선거 항의 데모를 하다가 실종돼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소식을 접하고 시내에 있던 시위대에 가세했다.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그는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강씨는 곧장 경찰에 연행됐다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달아났다. 강씨는 "또다시 경찰에 붙잡히면 죽을 것 같아 계속 숨어다녔는데 가족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장례 지낼 준비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광주상고 2학년생 전해룡(68)씨와 조대부고 2학년생 구양술(72·호남매일 사장)씨, 광주농고 2학년생 김영갑(69)씨, 조대부고 3학년생 이진규(68)씨도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4월 혁명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봄비 22일까지

광주·전남 10~40㎜

19일 광주·전남은 전날에 이어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은 곳에 따라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10~40㎜.

기상청은 22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9~12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내일 장애인의 날

광주·전남 곳곳 행사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기념식과 각종 행사가 열린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회장 정병문)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모여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힘써 온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증정도 있을 예정이다.

전남도도 오는 20일 오전 11시 영광 스포티움내 국민체육센터에서 기념식을 연다. /김대성기자 big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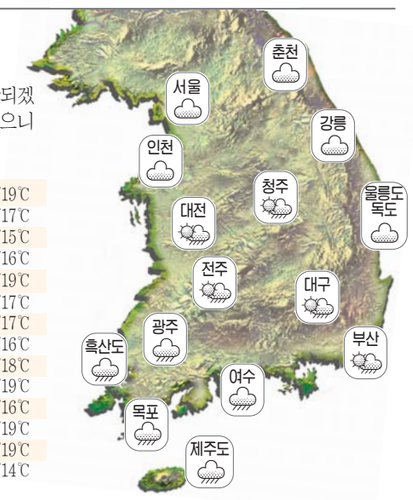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6분 해짐 19시 08분 달뜸 08시 59분 달짐 --시 --분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오전에 비가 시작되겠다.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자.

광 주	흐리고비	11/19℃
목 포	흐리고비	11/17℃
여 수	흐리고비	11/15℃
완 도	흐리고비	12/16℃
구 례	흐리고비	10/19℃
해 남	흐리고비	12/17℃
장 흥	흐리고비	12/17℃
고 흥	흐리고비	10/16℃
순 천	흐리고비	11/18℃
영 광	흐리고비	11/19℃
진 도	흐리고비	12/16℃
전 주	차차흐려져비	11/19℃
남 원	차차흐려져비	10/19℃
흑산도	흐리고비	11/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2.0~4.0m

	밀물	썰물
목포	05:15 17:12	10:24 22:26
여수	11:40 --:--	05:48 17:53

◇주간날씨

날 짜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날 씨						
최저/최고	14/22	13/17	11/16	8/20	5/20	5/21

김주열 묘비석 '열사' 새겨 넣었다

4·19 혁명 50년만에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김주열(1943~1960) 열사의 묘비석에는 그동안 '열사(烈士)'라는 글자가 없었다. 혁명 이후 군사정권 집권으로 열사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웠고 관심과 예산 부족 등으로 묘비석에는 '金朱烈之墓(김주열의 묘)'라는 한자가 새겨진 채 50년이 흘러왔다.

열사는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자신의 뜻을 죽음으로서 펼친 사람을 이르는 칭호로, 이승만 정권의 부정에 맞선 1960년 3·15의거 당시 산화(散華)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상고 학생이었던 김주열(당시 17세)열사의 묘비에는 정작 '열사'라는 표현이 없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김 열사 서거와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19일 고향인 전북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묘역에서 누나 김경자씨를 비롯한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와 남원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주관으로 기념식과 함께 새 묘비석 제막식이 열린다. 새 묘비석에는 50년 동안 없었던 '열사'라는 표현을 추가해 한글로 '열사김주열의묘'라고 새겼다.

/연합뉴스

"학원, EBS 교재 복제·전송 불법"

문광부 유권해석

학원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EBS 교재 무단 활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8일 학원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 학원강사의 교과서나 문제집 활용과 관련한 질의에 "사설학원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판서·구술 등 강의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사설학원 등이 교과서나 문제집, EBS 교재 등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수강생이 교재를 사고 학원이 단순히 칠판에 적거나 해설·설명하면서 강의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교재를 복사해 나눠주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해 해당 문제집 등이 팔리지 않게 된다면 위법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광부는 또 사설학원뿐 아니라 EBS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설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나 문제집을 사용해 강의할 때도, 지자체가 주체라거나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침해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대중학술상' 공모

전남대 5월 14일까지

전남대학교는 개교 58주년을 맞아 제4회 후광 김대중학술상 공모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민주·인권·평화 신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공헌한 국내외 학자, 학술단체, 학술기관 등이다. 이상은 민주발전과 인권 함양, 한반도 평화진전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으며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학술적 측면에서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전남대 산학연구처 산학연구과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